

Rotary Social Enterprise

로 타 리 사 회 적 공 헌 기 업 04

축제로 전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사회적 공헌기업의 역할

페스티벌을은 이제 창간한지 9개월 정도 지난 축제 전문 매거진이다. 월간지로 매월 국내외 축제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 페스티벌을의 발행인은 황순신 대표로 기획, 디자인, 제작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지엔퍼링크를 12년째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교육 콘텐츠와 관련된 인정 교과서의 편집디자인 136책을 수행하여 교육부 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콘텐츠를 다룬다는 것은 꽤 매력적인 일입니다. 더구나 축제 콘텐츠는 인류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파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축제는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로 축제를 의미하는 ‘festival’은 성일(聖日)을 뜻하는 ‘festivali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이것은 축제의 뿌리가 종교의례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종교적 기원으로서의 축제는 강력한 사회통합력을 지니며 성스러운 존재나 힘과 만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축제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고,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 기능하는 일종의 종교적 형태, 해방을 향한 문화, 인간의 유희적 본성이 문화적으로 표현된 것 등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된다. 그렇다면, 페스티벌을이 표현하고자 하는 축제는 무엇일까?

“축제는 소통과 공감의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꿈을 꾸며 화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글로벌화되는 축제의 모습이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때, 화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즐거움을 기본으로 준비된 축제장이라면 금상첨화 이겠지요. 요즘은 더욱 흥미롭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축제장을 찾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이 풍부합니다.”

페스티벌을은 로타리 사회적 공헌기업으로서 축제 콘텐츠를 널리 알려 인류가 하나 되는 것을 꿈꾼다. 이것은 곧 현실이 되어 모두가 문화의 풍요를 누릴 것이다.

월간 페스티벌을 발행인 황순신(서울예장RC)

문화, 예술, 역사
미래를 향한 꿈
세상과 세상을
축제로 하나되게



▲ (상) 타이완 국제열기구축제를 만들고 진두지휘하는 타이완관광청 천수웨이 부국장 (중)과 타이둥현 교통관광발전처 이지봉 과장(우)과 함께
◀ (좌) 요나고 가이나 마쓰리 축제 취재시 요나고시 이기 타카시 시장과 함께

창의적 콘텐츠로 소통의 길을 만드는 기업

가족사 현황

(주)지엔피링크 • (주)지엔피유니온 • (주)지엔피에듀 • (주)지엔피원 • 지엔피북스 • 페스티벌을 • (사)열린사회

황순신 대표는 영락보린원, 암사재활원 봉사 활동과 봉사단체이면서 사회적 기업인 열린사회의 공동대표로서 장애인복지유공 표창(2013, 경기도),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복지 표창(2015, 광명시)을 받으며, 독거노인 집 내부 수리 및 개선 봉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축제. 그 속에 역사, 문화, 예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 있다.

최근 문화관광축제가 성행하고 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의 활기를 불어일키며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글로벌 축제는 방한 관광과 더불어 관광 수입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준다. 즉, 축제가 산업으로도 연계되는 것이다. 축제와 산업이 맞물리면서 그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그것은 축제장에서 만나는 많은 현상들로부터 가늠할 수 있다.

가족의 친화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축제는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어 여행과 더불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도 가족과 함께 축제를 즐기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다. 그것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해외여행객까지 작은 그룹들이 모여 큰 그룹이 되며 이것이 축제라는 커다란 문화 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축제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에너지는 그 공간을 가득 채워 전파 되고, 그 에너지를 느끼기 위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현시대에 있어서 '봉사란 무엇일까?' 그 개념과 가치, 역할은 아마 10여 년 전과 다를 것이다. 혼밥, 혼술이란 신조어가 생길 만큼, 세상은 개인주의화되고 있다. 이 시대에 함께 하는 방법, 화합하는 방법, 그리고 나누는 방법을 알리고 실천하며 사회의 소외된 이들도 이 모든 것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봉사가 아닐까? 즉, 축제장에 녹아 있는 마음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축제로 인한 또 다른 개념의 '봉사'인 것이다. ☀